



책읽는꿈 은 무엇이든 될 수 있는 아이에게
무엇이든 주고 싶은 부모의 마음으로 어린이책을 만듭니다.

미래
꿈



주소 서울시 마포구 성지길 48
전화 02-332-2672 팩스 02-338-2672
홈페이지 www.bearbooks.co.kr
SNS Instagram @bearbooks_publishers



우리가족
남치사건

책놀이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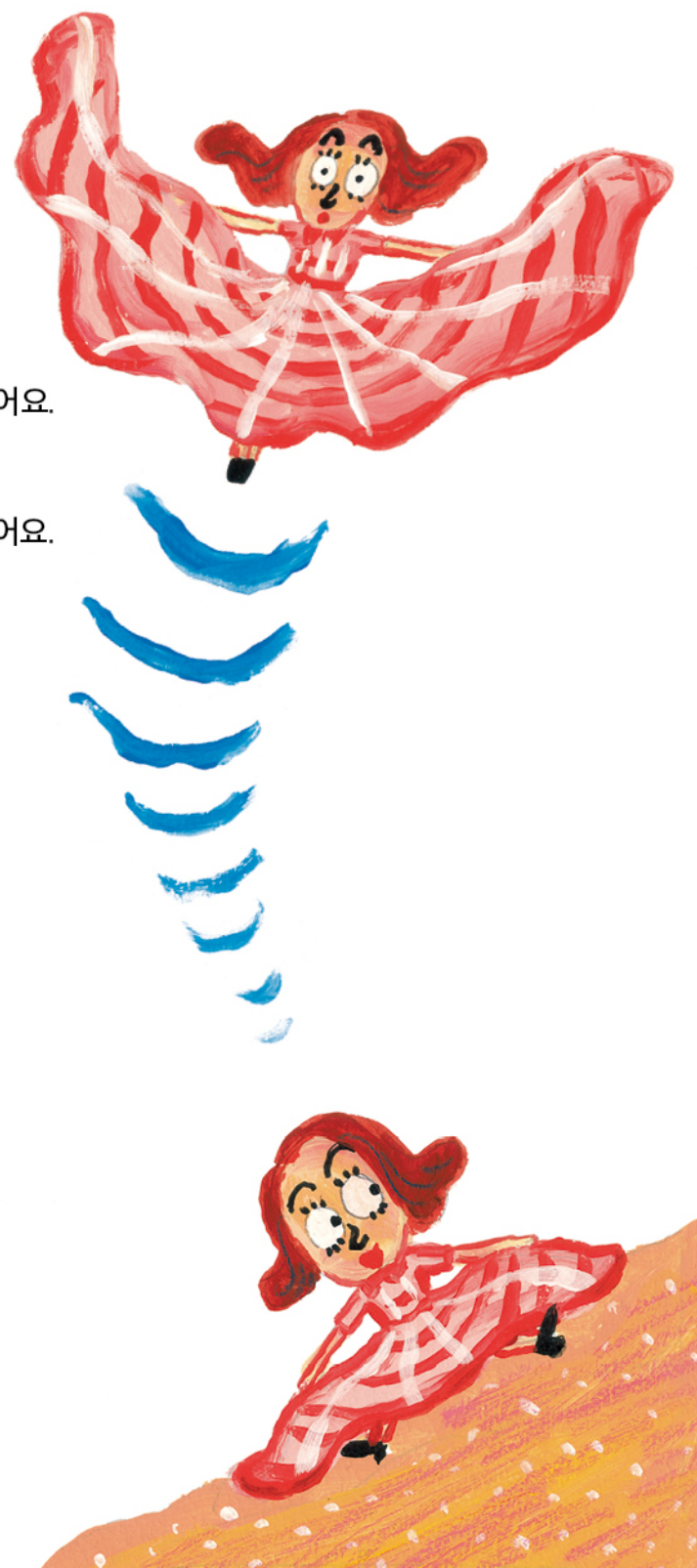
책
놀이
책



우리 가족 납치 사건

김고은 그림책 | 책읽는곰 펴냄

우리 아빠 전일만 씨는 입만 열면 피곤하대요.
우리 엄마 나성실 씨는 몸이 한 열 개쯤 되면 좋겠대요.
나는요, 학교도 학원도 없는 곳에서 딱 한 달만 살면 좋겠어요.
아니 딱 일주일만, 아니 딱 하루라도 좋아요.
아빠랑 엄마랑 나랑 셋이서 놀고, 놀고, 또 놀았으면 좋겠어요.
지치고 힘들고 피곤한 우리 가족,
누가 어떻게 좀 해 주면 안 될까요?



김고은 작가의 책

김고은 작가의 말

언젠가 전철을 타고 가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전철이 나를 데리고 멀리멀리 가 주면 좋겠다고요. 그렇게라도 지친 몸과 마음을 쉴 수 있으면 좋겠다고요. 어린이들도 가끔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쁜 아빠, 바쁜 엄마, 바쁜 나를 누군가 멀리멀리 데려가 마음껏 놀게 해 주면 좋겠다고요. 그 생각이 자라서 이 그림책이 되었습니다. 서울에서 태어나 독일 부퍼탈 베르기슈 대학에서 그림을 공부했습니다. 《쥐와 게》, 《책 좀 빌려 줘유》, 《똥 호박》 등에 그림을 그렸고, 《일어날까 말까?》, 《딸꾹질》, 《조금은 이상한 여행》, 《눈 행성》을 쓰고 그렸습니다.



똥 호박

* 한우리열린교육 선정 도서
* 서울시교육청도서관 사서 추천 도서
* 동원 책꾸러기 선정 도서
* 아침독서신문 추천 도서



눈행성

* 북스타트 책날개 선정도서



날아라 태권 소녀

* 한우리 열린교육 선정도서





그림책을 보기 전에

1. 가족들은 왜 납치되었을까요?
2. 표지 속에서 엄마 아빠와 달리 여자아이가 미소짓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3. 여러분도 하루쯤 학교를 빠지고 싶었던 적이 있나요?

그림책을 보고 나서

1. 납치된 가족은 처음에 기분이 어땠을까요?
2. 가족들이 납치된 다음 회사, 집, 학교에서는 무슨 일어났을까요?
3. 우리 가족에게도 동화책 속 가족 같은 일이 일어난다면 어떨까요?

책놀이 1 줄거리 이해하기

아래 그림을 보고 줄거리의 순서에 맞게 번호를 써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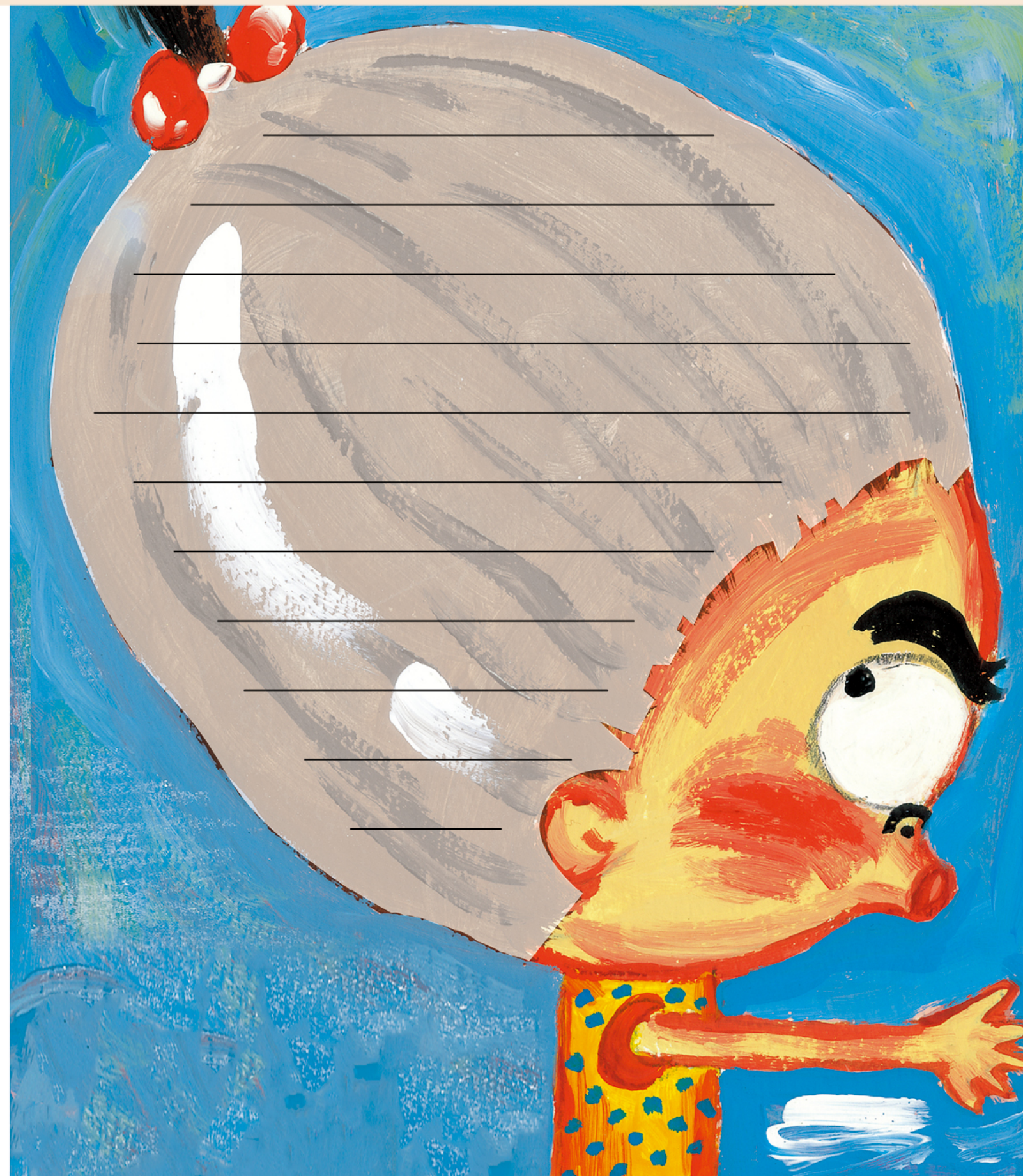
일이 일어난 순서:



아빠 전일만 씨를 비롯한 다른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생각 풍선 속을 채워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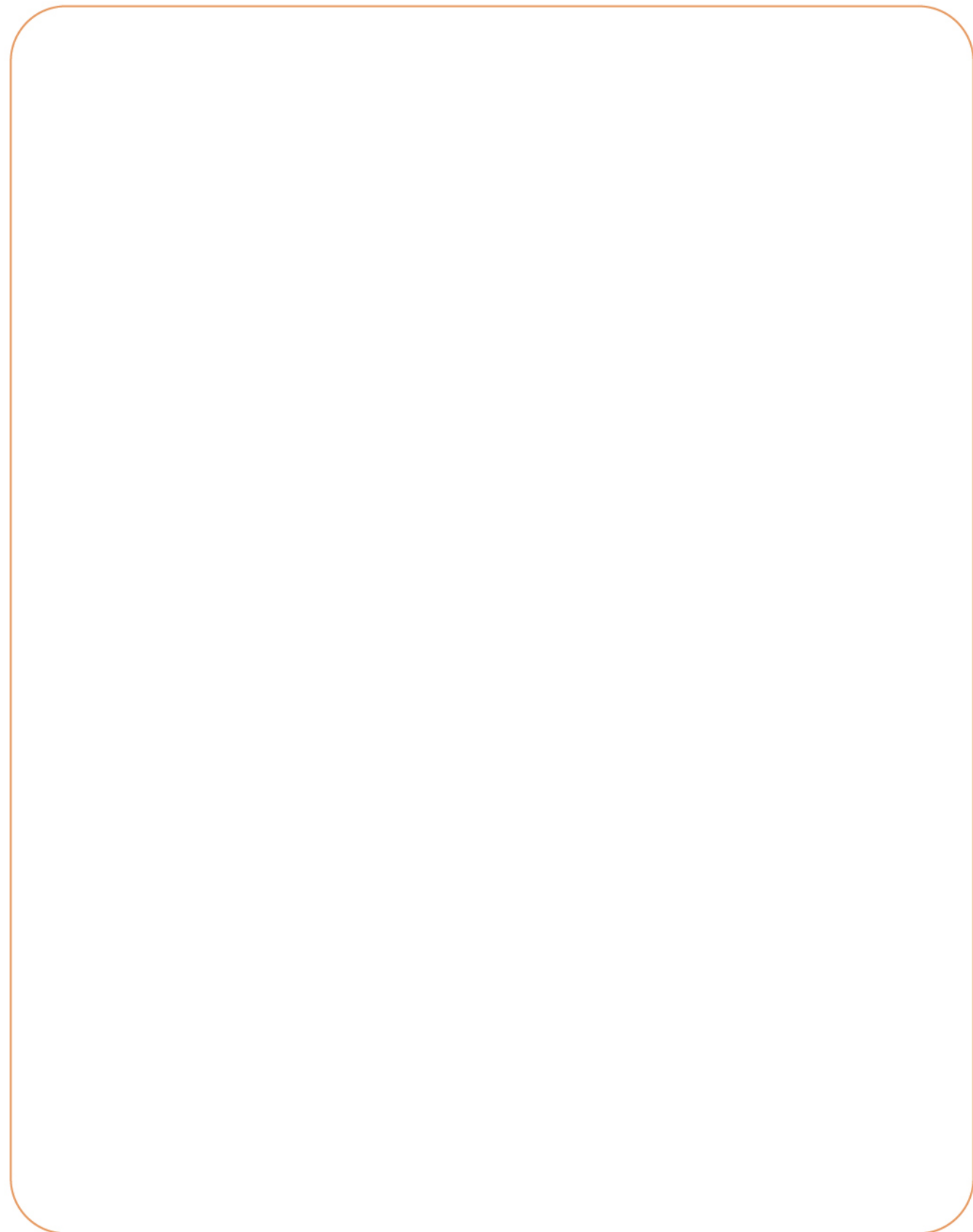
혹시 여러분도 진해처럼 학교에서 머리가 터질 뻔한 적이 있나요?
어려운 문제를 풀어야 하거나, 친구와 다투거나 해서요.
만약 그랬던 적이 있다면 여러분의 기억을 적어 보세요!



책놀이 4 나라면...

엄마는 치마가, 아빠는 가방이 진해는 머리에서 숫자가 빠져나가는 바람에 바닷가에 도착하게 되었지요.

만약 여러분이라면 어떤 방법으로 바닷가에 가게 될 것 같아요?
자유롭게 상상해서 그림으로 표현해 보세요.



책놀이 5 대화를 상상해요

바닷가에서 만난 진해네 가족은 무슨 대화를 나누었을까요?
상상하여 말풍선을 채워 보세요.



책놀이 6 감정을 색으로 표현해 보기

출근길, 회사, 학교에 있는 가족들의 감정은 어떨까요?
바닷가에서 신나게 놀고 있는 가족들의 감정은 어떨까요?
오른쪽 마음 상자들을 보고 가족들의 감정에 어울리는 색을 골라 칠해 보세요.

빨강색
막막한

주황색
편안한

노랑색
피곤한

초록색
여유로운

파랑색
지루한

보라색
재미있는

하양색
귀찮은

분홍색
우울한

하늘색
홀가분한

회색
만족스러운

연두색
행복한

검정색
답답한



책놀이 7 우리 가족도 혹시...?

여러분도 학교를 빠지고 놀러 가고 싶은 적이 있었나요?
엄마와 아빠도 회사를 빠지고 놀러 가고 싶었던 적이 있었을까요?
내 솔직한 마음을 적어 보고, 부모님의 속마음도 인터뷰해 적어 보세요.

내 마음을 솔직히 적어 보기

부모님의 마음을 인터뷰 해 보기



정답

책놀이 1

5 → 8 → 7 → 3 → 6 → 1 → 4 → 2